

미국 관세 충격에 전남 농민이 운다

정부, 관세협상 앞두고
농축산물 개방 시사
농도 전남 타격 불가피
농민단체 등 강력 반발



한미 상호관세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농산물 분야 개방 검토 가능성을 시사해 농민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5일 보성군 복내면 한우농가의 축사 전경.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통상당국이 미국과 본격적인 관세협상을 앞두고 농축산물 개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전남지역 농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많고 한우 축산두수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미국산 소고기와 쌀 수입이 확대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협상에서 에너지·농산물 등 자국 상품 구매 확대, 각종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 농축산업계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고섭본부장이 '대미 협상 타결을 위해 농산물 분야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측과 협상과정에서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농축산물 개방을 공식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여 본부장은 "우리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나라는 통상 협상하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고, 그러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은 또 강화됐다"면서 "농산물 부분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부분은 지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미국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미니 당근, 딸기, 냉동 라즈베리·블

랙베리 수입을 요구 사항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농민단체와 한우생산자협회는 여 본부장의 발언을 두고 쌀과 소고기 등 일부 농산물의 경우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양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만약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협상이 이른바 '민감한 부분'으로 분류되는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로까지 이어진다면 전남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전남의 쌀 생산량은 70만 9000t으로 전국 생산량(358만 5000t)의 19.8%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쌀 생산지다. 최근 이상기후로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쌀 가격마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산 쌀 수입이 확대될 경우 쌀 재배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의 축산 두수도 전국 347만 4000두 중 62만 두로 경북(75만두)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한우를 키우는 농가만 해도 1만 5000 농가나 된다.

농민단체와 한우생산자협회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6일 오후 전남도의회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전농광전연맹은 이날 "이재명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계획을 중단하라"며 "이재명 정부는 송미령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스스로 반농업 농민 정부임을 자임했으며 이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도 국민건강과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을 포기한 정권으로 낙인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무역장벽을 없애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 상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주말까지 많은 비

광주·전남 최대 100mm 쏟아져

광주·전남 지역에 주말인 19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부터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는 19일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16일부터 17일까지는 광주·전남 전역에 20~80mm의 비가 내리며, 전남북부서해안에는 100mm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8~19일에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많은 양의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호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지만,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웠다.

16일 아침최저기온은 21~24도, 낮최고기온은 26~29도를 보이겠고, 17일 아침최저기온은 23~26도, 낮최고기온은 28~31도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 차이가 크겠다"며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는 출입을 금지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수박 한 통 3만원

폭염 계속되면 더 오를 듯

수박 한 통 평균 소매 가격이 최근 하루가 다르게 뛰면서 3만원을 넘었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에 따르면 전남 수박(상품) 한 통 평균 소매 가격은 전통시장에서 3만 327원으로 3만원을 돌파했다.

유통업계에선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이 2만 9543원으로 3만원에 육박했으나 이미 3만원 넘는 가격에 파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전국 평균 수박 가격은 전날 2만 9816원으로 3만원을 눈앞에 뒀다. 직전 집계일인 지난 11일 대비 700원이나 올랐으며 지난 4일(2만 3763원)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6000원 이상 상승했다.

유통업계는 무더운 날씨가 생육에 영향을 미쳐 수박 당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준치 이상의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본다. 또 무더위에 수요가 증가한 것도 수박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날 수박 출하량이 작년 같은 달과 비슷하겠지만 기온 상승으로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교사가 시중 참고서 빼게 기말고사 출제 ▶6면
- KIA 루키 이호민 "1군 도전은 계속된다" ▶18면
- 일하는 청년 -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22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7·8월 전기요금 누진 완화로 냉방비 부담 줄인다

당정, 취약계층 지원

때 이른 폭염에 따라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

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 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

kW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kWh 이상에서 451kW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이 같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The new EQE SUV

누구도 예상 못한 아우라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중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사곡로 062)942-7200 / 일반전화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4M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 (도심: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5, 공차중량(kg) : 2540, 배터리 용량(kWh) : 90.56
· EQE 500 4M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 (도심: 4.2,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9,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9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